2026.11.06

[국내주식 마감 시황]

이재원 Market Analyst | jaewon2.lee@yuantakorea.com
김세빈 Research Assistant | sebin2.kim@yuantakorea.com

AI 우려에 아시아 주식시장 동반 급락

KOSPI 5,060pt(-6.0%), KOSDAQ 644pt(-5.0%)

시황 외국인 투매와 강제매도 우려가 확대시킨 하락,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익 훼손

- 금일 KOSPI와 KOSDAQ은 각각 6%, 5% 급락했습니다. 간밤 미국 나스닥(-5.5%)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12.3%) 급락의 영향으로 장 초반부터 매도세가 집중됐습니다. KOSPI는 개장 3분 만에 8.8% 급락하며 5,000pt를 하회했고,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간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이후 양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장중 낙폭을 일부 회복했지만 반도체 대형주와 AI 인프라 전반의 약세가 지속되며 이틀 연속 대규모 투매가 나타났습니다.

- 가장 큰 부담은 외국인 수급이었습니다. KOSPI에서 외국인은 약 2.8조원 순매도하며 전일 약 3.4조원에 이어 이틀간 6조원 이상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약 1.8조원 순매수했으며, 이 중 금융투자가 약 1.7조원, 연기금이 약 2,900억원을 순매수하며 외국인 매도 물량을 일부 흡수했습니다. 개인도 약 5,300억원 순매수했습니다. 장 초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의 급락 이후 낙폭이 축소됐다는 점은 매수 주체의 대응을 보여주지만, 외국인 매도가 장 마감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수급 불균형이 해소됐다, 진정됐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장중 정부는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의무를 11월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주가 급락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한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집중되며 추가적인 매도 압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증권사별로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반대매매가 전면 중단되거나 기존 신용융자 상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의 신규 매수 여력 확대보다 강제 청산에 따른 수급 악순환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둔 시장 안정 조치라는 판단입니다.

- 금일 예정된 급락에도 기존에 제시한 판단을 변경할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데이터센터 인허가 규제와 MS의 네오클라우드 계약 재검토는 실제 투자 집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러나 일부 프로젝트의 지연 가능성을 AI 투자 사이클 전체의 종료와 메모리 다운사이클로 연결하기에는 여전히 근거가 부족합니다. 2027년 주요 데이터센터는 상당 부분 이미 착공됐으며, 장기공급계약과 제한적인 메모리 공급 확대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시장은 2028년 이후 투자 둔화 가능성을 당장의 공급망 이익 훼손으로 확대 해석하며 위험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 속 투매를 코로나19 당시에도, 관세의날 당시에도, 이란전쟁 발발 직후에도 겪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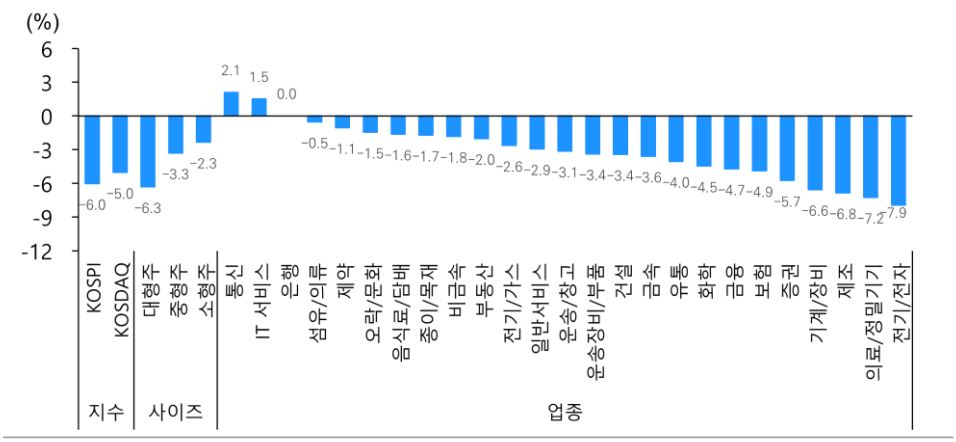
- 전략) 현재의 급락은 실제 확인된 펀더멘털 훼손보다 미래 투자 축소 우려와 수급 불균형이 앞서 나간 투매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AI 투자 지연 우려에 옵션 헤지와 레버리지 포지션 축소가 겹쳤고, 국내에서는 외국인 대규모 현물 매도가 낙폭을 확대시켰습니다. 외국인 선물 수급의 경우 K200 선물 2거래일 연속 7천계약씩 대규모 순매수 지속 중입니다. 정부의 반대매매 완화 조치와 금융투자 및 연기금의 매수는 수급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추세 회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주가가 반영하는 최악의 투자 축소 시나리오가 실제 발주 취소와 이익 하향으로 확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전일 CNN과 텍사스 주지사 간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민주당 주지사 당선자들이 데이터센터를' 자신의 주에서 삭제시켜야 할 악의 축'으로 보고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중 도달했던 4,900pt(저가 4,911pt)는 12개월 후행 PBR 기준으로도 1.2배 수준입니다. 이는 2004년 이후 22년간 KOSPI 12개월 후행 PBR의 평균치에 불과합니다. 힘드셔도 지금 파실 때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추가 비중 확대는 2028년 EPS 전망과 AI 인프라 기업들의 신용위험 안정 여부를 확인하며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단위: 억원)	KOSPI	KOSDAQ
기관	16,995	2,043
외국인	-27,611	-984
개인	5,962	-1,105
거래대금	274,919	47,545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

일간 수익률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